

[예술상을 점검한다] - 문학

열린 축제의 출발과 가능성

유입하
문학평론가

‘올해의 예술상’이 문학상의 제도적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시스템 구축에 정성을 기울인 점은 무엇보다도 높게 평가할 만하다. 이는 창작 주체인 문인, 전문가집단, 문학시장과 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호응도를 높이는 한편 수상작의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장치로 보인다.



문학상 현황

해마다 12월이 되면 10대에서 초로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의 ‘문학 청년’들이 가슴 졸이며 한 해의 문학 농사를 정성껏 지어 언론사에 투고한다. 이런 모습은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별반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문학의 열병은 10월을 넘어서면 서서히 도지기 시작하여 12월의 크리스마스 이브, 그것도 저녁 무렵에야 쓸쓸하게 막을 내린다. 12월이 되면 당선소감을 미리 써놓고 당선 통고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문청들의 기대치는 한껏 부풀어 올랐다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함몰한다.

신춘문예에 투고한 시의 편수가 몇만 편을 상회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보면, 이 땅의 시인과 작가들은 행복하다고밖에 달리 말하기 어렵다. 필자는 아직까지도 청년 시절 앓았던 열병의 상처가 남아 있다. 그래서 12월 31일 저녁 때마다 그 열병을 떠올리며 1월 1일자 일간지 신년특집호를 빠짐없이 사서 두툼한 부피를 옆구리에 안고 귀가길에 오른다. 1월 첫날 하루만큼은 신인들의 빛나는 등단작을 읽는데 기꺼이 바치고 있다. 이렇게, 시와 시인을 여전히 사랑하고 열망하는 사회를 보면, ‘문학의 죽음’을 공공연히 되뇌는 지금의 우울한 현실에서조차 추구해야 할 문학의 미래는 그래도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든다.

이런저런 경험을 미루어, 한 세기에 못미치는 기간 동안 한국문학의 자생력을 탄실하게 가꾼 동력을 꼽으라고 하면 주저않고 신춘문예와 잡지추



올해의 예술상(문학) 최우수 선정작품을 수상한 천운영 씨와 소설집 『명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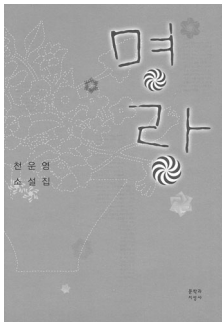
천제 같은 등단제도와 문학상을 거론할 것이다. 문인 등단의 제도가 문학적 재능을 구비한 자를 입문시키는 통과예라 하면, 문학상은 제도의 권위를 빌려 뛰어난 문인을 발굴하고 문학의 전통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문화축제이다. 비록 신춘문예나 잡지추천제와 같은 등단제도나 문학상 제정이 근대 일본의 문학제도에 연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자가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선배 문인들이 간과한 제도의 순기능과 문학의 미래를 향한 열정의 소산이었다.

문학상 제정 연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1950년대 3개, 1960년대 7개였다가 70년대가 되면 22개, 80년대에는 87개, 90년대에는 93개가 제정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준다(『1998 문예연감』 편람 참조).

문학상의 제정과 제도 시행이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은 1955년부터 시행된 『현대문학』의 ‘현대문학 신인상’과 『사상계』의 ‘동인문학상’이다(1950년대에는 대한민국 예술원상까지 3개의 문학상만 있었다). 이들 문학상은, 각각 남한과 북한지역을 연고로 삼아 진영화하고 세를 불렀다는 부정적인 혐의가 없지 않지만, 수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60년대

이후 한국문학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문인들의 축제가 산실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60년대의 문학상으로는 이밖에도 대한민국 예술원상, 한국일보문학상, 월탄문학상, 한국시협상이 제정되었다).

일례로, 50~60년까지 동인문학상과 현대문학 신인상의 역대 수상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



성한(1회), 선우휘(2회), 오상원(3회), 손창섭(4회), 이범선과 서기원(5회, 당선후보작), 남정현(6회, 당선후보작), 전광용과 이호철(7회), 송병수(7회), 김승옥(11회), 최인훈(12회), 이청준(12회)(이상 동인문학상), 손창섭(1회), 김광식·박재삼·최일수(2회), 박경리·이수복·김양수(3회), 이범선·구자운·임희재·유종호(4회), 서기원·정공채·오학영·김상일(5회), 오유권·김상익·원형갑(6회), 이호철·이중학(7회), 권태용·박봉우(8회), 한말숙·문덕수(9회), 이문희·박성룡(10회), 이광숙·이성교·천이두(11회), 최상규(12회), 정을병·황동규·오혜령(13회)(이상 현대문학 신인상) 등. 역대수상자의 면면을 보면, 나름대로 한국문학에서 신뢰할 만한 성과와 역할을 담당해 온 주역이라는 사실을 재삼 확인하게 된다.

70년대에 이르러 되면, 『사상계』의 폐간에도 불구하고 문학잡지는 60년대 후반 창간된 『창작과비평』과 『문학과 지성』을 비롯하여 『세계의 문학』 『문학사상』이 창간되면서 『현대문학』이 구축해놓은 독과점체제를 분화시켜 나간다. 그에 따라 문학상 제정도 활발해지는 것이다. 70~80년대에는 문학상 제정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만해문학상, 신동엽창작기금(창작과비평사), 이산문학상(문학과지성사), 김수영문학상, 오늘의 작가상(이상 민음사),

이상문학상, 소월시문학상, 문학사상 신인상(문학사상사), 동서문학상, 동서문학 신인상(동서문학사) 등과 같은 내력 있는 수상제도가 마련되는 것도 이 시기였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오면, 팔봉문학상, 편운문학상, 요산문학상, 오영수문학상, 정지용문학상, 김달진문학상, 소천비평문학상, 고석규문학상, 한무숙문학상, 황순원문학상과 미당문학상, 대산문학상 등과 같이 특정문인과 특정 장르에 해당하는 문학상 제정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여준다.

2003년판 문예연감을 참조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문학상 총수는 총 365개이지만 실제 수상자를 낸 문학상은, 신춘문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206개로 집계되고 있다. 200여 개의 문학상이 제정되고 운영되는 이 풍요로운 외양은 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뒷받침해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수많은 문학상의 그늘진 면 또한 적지 않다. 문학의 탁월한 성취를 정선, 발굴하여 문학 정전을 구축해 나가는 문학상 제정 취지와 그 순기능을 가리는 일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다. 소수에 집중되는 수상자의 중복현상이나 동문들의 화목수준에서 수상이 결정되는 집안잔치의 경향은 논외로 치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작품의 수상 결정이나 공공연한 정실과 검증 절차 없는 암묵적인 수상작 결정구조는 문학의 탁월한 성취가 독자들에게 제공되는 기회를 방해하는 '정보 스모그'를 초래하거나, 아니면 세속적 패거리를 만들며 문화권력화되는 현상도 생겨나고 있다.

또한, 소수이긴 해도 수준 미달의 수상작 선정으로 인해 공정성의 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거기에는 수상작과 후보작을 한데 모아 간행하는 출판 상업주의의 횡행도 문학상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문학상이 구축해 온 빛나는 권위와 빼어난 수상작의 배출이라는 전통을

견지하는 모습은 엄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상급 액수에 관계없이 연륜으로 보나 문학적 유산을 축적해 온 공로마저 모두 부정해버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특정언론을 둘러싸고 형성된 문화적 대치전선에서, 상대 진영의 문학상 제정을 두고 자본을 통한 문학의 예측화라고까지 단정해버리는 것은 다소 성급한 판단이다. 이것은 과거 언론이 수행해 온 문학의 제도적 연관과 공생의 불가피함마저 부정해버리는 속단에 가깝기 때문이다. 문학상 제정 난립과 수상을 둘러싼 온갖 추문과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문학상의 제도적 권위를 확보해 한국문학의 수준을 엄정하게 기증하며 선도적 역할을 담당, 문화의 새로운 척도를 세우기 위해 부심하는 긍정적인 사례 또한 얼마든지 있다.

공정성, 객관성, 신구세대 안배 조화 돋보여

야심 찬 기획으로 첫발을 내디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의 '2004 올해의 예술상(문학상)'은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 예술상 시상을 문인들만의 집안잔치로 그치지 않고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승화시키려 한 점이 크게 돋보인다. 문학예술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축제화하려는 기본 취지만 해도 그간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경직된 예술정책을 불신해온 문화예술 현장의 바람을 적극 반영하려는 바람직한 변화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선 '올해의 예술상'이 문학상의 제도적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시스템 구축에 정성을 기울인 점은 무엇보다도 높게 평가해 볼 만한 대목이다. 1단계에서 문학 분야 전문 추천위원단에서 추천하는 방식, 작가의 출품 신청을 접수하는 방식, 국민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삼분화해서 추천작품 리스트를 총합하는 시스템은 문화예술계의 이해관계나 정실 논란이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

2004 올해의 예술상 수상작의 면면을 보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 신구세대의 안배와 조화가 돋보인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천운영의 작품집은 여성소설의 한계를 넘어 그로테스크와 욕망을 천착하며 독자적인 전선을 구축한 사례로서, 현장비평의 관심을 한껏 모으고 있다.



는 개방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주목해 볼 부분이다. 이는 창작 주체인 문인, 전문가집단, 문학시장과 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호응도를 높이는 한편 수상작의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장치로 보인다.

이러한 추천방식은, 기존의 언론매체에서 제정한 문학상 제도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상금을 대폭 인상하고 종신심사위원제도를 도입하여 한 해 동안 발표된 작품집이나 장편을 윤독하도록 하는 집중적인 방식보다 좀더 진전된 면모를 보여준다.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보되는 참여와 함께 제도의 합리성과 권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가치를 창출한다.

2단계 선정과정이 1단계에서 제출된 추천작품 리스트와 분야별 선정위원들의 추천작품 리스트를 심층 심의하여 20편의 작품을 선정하는 방식은 공정성과 개방성을 보완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1단계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바람직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1단계에서 추천한 결과를 바탕으로 20편 내외의 작품을 확정하는 1차 선정위원회의 역할이나 2차 선정위원회에서 창의성과 탁월한 성취, 만족도, 공헌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최종 수상작을 결정하는 방식은 수상대상작을 좁혀나가는 합리적인 수

순으로 보인다. 거기에는 시상식 직후 개최되는 예술축제는 '올해의 예술상'의 대미를 장식하고 작가가 직접 독자와 만나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신선한 기획이었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천운영의 『명량』이 무용, 음악, 연극으로 무대에 올려져 다른 장르로 넘나드는 문화적 실험으로 대미를 장식한 것은 축제화의 플롯을 충족시켜 준다.

이번 수상작의 면면을 보아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 신구세대의 안배와 조화가 돋보인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천운영의 작품집은 여성소설의 한계를 넘어 그로테스크와 욕망을 천착하며 독자적인 전선을 구축한 사례로서, 현장비평의 관심을 한껏 모으고 있다(이 점은 신문 지상에서도 확인된 바이지만 올해의 신춘문예 비평이 많은 경우 천운영의 소설을 관심의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황석영의 『심청』은 오랜 영어생활을 벗어던지고 나서 현대사 3부작을 의욕적으로 매듭짓는 마침표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80년대에 바치는 헌사인 『오래된 정원』, 전쟁을 전후로 분출했던 민족 내부의 광기와 역사적 채무를 천도제로 승화시킨 『손님』과 함께, 『심청』은 설화 속 인물인 심청을 호명하여 동아시아의 근대를 헤쳐 나



올해의 예술상(문학) 우수 선정작품을 수상한 소설가 황석영 씨

가는 여성 영웅의 오디세이로 다시 쓴 역작이다. 거기에는 김혜순 시인의 『한 잔의 붉은 거울』 또한 개성적인 시세계를 거둔 성취를 보여주는 귀한 결실이다.

이렇듯, 수상작의 면면은 마치 잘 짜여진 창작의 진용처럼 여겨진다. 신진작가를 최상위에 올리고 중견작가, 중견시인을 우수상으로 결정한 것은 신예와 중진, 대가를 망라한 한국문학의 트로이카로 보이게 만든다.



올해의 예술상(문학) 우수 선정작품을 수상한 김혜순 시인

올해의 예술상으로 문화인프라 구축

문학시장의 위축은 IMF 이후 4조 800억에 가까운 시장 규모가 2003년에는 2조 4000여 억으로 줄어든 것만 보더라도 피부로 느낄 만큼, 전례가 없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추세에서 문예진흥원이 기초예술의 토대를 제도적으로 선도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문화예술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주체가 되는 문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하는 일은 그런 측면에서 포기해서는 안될 제도적 장치의 하나이다. 예술상 선정과정을 축제로 승화시켜 문학 향유자들에게 널리 전파하려는 문예진흥원의 기획이 의미를 갖는 것은 문화 인프라의 구축을 향한일보 전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일까. ‘올해의 예술상’에 대한 일말의 아쉬움도 없지 않다. 문학상이라는 제도가 가진 순기능을 한껏 활용하려는 열정과 시스템 마련에 수궁하면서도 묵묵히 정진하는 다수 문인들의 희생과 헌신, 문학시장이 크게 위축된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올해의 예술상’을 외양부터 찬찬히 살펴보면, 이 제도가 자율과 분권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탄생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만큼 운영위원회가 만들어낸 세심한 절차와 진행과정은 돋보인다. 하지만 3단계에 이르는 선정절차에서 보여준 무리없는 제도의 개방성과 공정성에도 불구하고 이 상이 가진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 이념이 무엇인지가 다소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앞서 언급했던 관록 있는 문학상의 전통은 물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첫 행보가 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예술상’이 가진 무색투명함은 선정기준으로 내세운 항목이 세계화와 지방화를 포괄하는 문화이념을 보여주기에 미흡해 보인다. ‘작품의 예술적 우수성 및 완성도’ ‘창의성과 수월성, 참신성·독창성과 그 예술적 구현 효과’ ‘참여 예술인의 기량과 수준’ ‘해당 작품에 대한 수용자의 관심도, 해당 분야 발전에의 공헌도 및 과급성’을 거론하고는 있지만, 이들 내용은 문학상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세척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지. ‘올해의 예술상’은 기초예술의 토대를 마련하는 보편적 시대적 요청과 그에 따른 이상이 투영된 문화이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다음으로 작품 선정과정에서 엿보이는 제도 운영의 묘이다. 문인들의 작품 신청 기간이 9월 6일에서 9월 25일까지 20일인 반면, 1차 선정위원회에서 작품의 심의하는 기간은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대략 1주일 이내로 짧다. 만약 해당 작품들을 분담해서 선별하고 추천하는 방식이라면, 심의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재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런 맹점을 보완하려면, 심의과정은 다소 번거롭더라도 복수의 추천위원회가 교차 심의

문화예술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주체가 되는 문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하는 일은 포기해서는 안될 제도적 장치의 하나이다. 예술상 선정과정을 축제로 승화시켜 문학 향유자들에게 널리 전파하려는 문예진흥원의 기획이 의미를 갖는 것은 문화 인프라의 구축을 향한 일보 전진이기 때문이다.



하는 도리밖에는 없다. 이 말은 이번 심의과정에서 교차심의를 취하지 않고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1단계에 마련된 추천작품 리스트가 단순히 추천의 통계에 따라 선별되었을 개연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올해의 예술상’ 수상자 결정에서 드러난 아쉬운 점이 또 하나 있다. 문인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실을 감안하면 소수의 문인들에게 편중된 듯한 현실이다. 이는 개인의 역량과 사회적 조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지만,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올해의 예술상을 축제로 하려면

‘올해의 예술상’의 심의, 선정과정 자체를 축제로 하려는 방안은 무엇일까. ‘올해의 예술상’을 축제로 하려면, 1단계에서 사업 취지를 왜곡할 우려 때문에 시행을 미룬 국민대상 인기투표를 대체할 만한 문학수용자와 소통하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문학상 제도가 시작되는 9월 하순부터 축제로 마무리되는 12월(또는 1월 초순)까지 문학 수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문학수용층의 기반을 확충하는 전 과정을 축제로의 방향은 사회적 협력망을 다시 짜는 일이 있을 것이다. 대형서점이나 지방 자치 문화단체와의 공동협력망을 구축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 그런 다음, 신예작가나 중견작가, 대가의 반열에 오른 작가들의 초청강연회 같이 대학로를 중심거점으로 삼아 전국 각지의 지역거점을 ‘찾아가서’ 문학의 열기를 지피는 동시다발적

인 행사 개최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금요문학이야기’와 같은 작가와의 만남을 상설 운영하다가 이 시기가 되면 대학로의 문화공간을 문학과 예술의 축제 장소로 바꾸는 일도 생각해볼 만하다.

대학로에서는 10월이나 11월 보름이나 한 주 동안, 작가의 애장본 경매, 고서와 휘귀본 물물교환시장, 집에 있는 작품집을 들고 나와 작가의 사인을 받고 대담하고 기념촬영하는 행사를 마련하고, 이러한 축제 분위기가 정착되면 상설화하는 방안도 얼마든지 가능해 보인다. 또한 ‘올해의 예술상, 예술축제’의 시기가 되면 은둔했던 작가들이 독자들에게 나와서 소통하는 정례화된 축제가 지역 영화제처럼 마련되어 관광명소로 자리잡았으면 한다. 수상후보에 오른 문인들 모두가 독자들에게 찾아가는 행사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책을 병행한다면 ‘올해의 예술상’은 심의과정 안팎에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신문매체에서 올해의 시인, 작가를 10명 정도씩 선정하여 가을에서 겨울까지 이들을 조명하고 독자와의 대화 기회를 제공한다면 썩 흥성스러운 문화축제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이다(이를 관장하는 것은 아웃소싱의 방식으로 기획사에서 주관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부디 올해의 예술상, 예술축제를 기획한 자의 초심이 문화의 발에서 아름답게 꽃피기를 기대한다. 또한 관료화된 제도의 관행으로 그치지 않고 끝없는 조언을 받아들여 자기갱신을 통해 문화축제의 장을 마련하기를 거듭 소망한다. 🙏